

조재진 프리미어리그행 ‘눈앞’

4개구단과 입단 협상중 뉴캐슬서 가장 큰 관심

조재진(26·시미즈)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눈앞에 왔다.

조재진의 에이전트사인 IFA 한재원 이사는 25일 “현재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4개 구단과 조재진의 입단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는 “아직 특정 팀을 지목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4개 팀에서 모두 조재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모두 끝난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재진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팀을 고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협상을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한 한재원 이사는 이어 “마무리 협상을 하기 위해 27일 영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며 “조재진은 함께 가지 않는다. 국내에 남아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특히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벨기에와 네덜란드 리그 진출은 모두 접은 상태”라며 “오직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못박았다.

현재 조재진의 영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통 강호로 현재 정구리그 9위를 달리고 있다.

北, 우즈베크와 비겨...킹스컵축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북한이 전조전 형태로 치르고 있는 킹스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중앙아시아의 난적 우즈베크스탄과 비겼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24일 밤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경기장에서 열린 2007 킹스컵 4개국 풀리그 2차전에서 후반 안철현이 선점골을 뽑았지만 후반 8분 우즈베크스탄의 파벨 솔로민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12분 뒤 티무르 아파로프에게 역전골을 허용, 패배 위기에 몰렸다.

북한은 그러나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신인으로 뽑힌 김금일이 동점골을 터뜨려 우즈베크스탄과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성탄절 ‘사랑의 축구대회’ 성탄절인 25일 서울 상암월드컵구장에서 열린 ‘홍명보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07자선축구경기’에서 사랑의 조재진이 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필뉴스

“구단 처분에 맡긴다”

KIA 이종범 내년 연봉 백지위임

‘바람의 아들’ KIA 이종범(37·사진)이 2008 시즌 연봉을 구단에 백지위임했다. 이종범이 구단에 연봉 백지위임을 한 것은 올해 부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구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지난 93년 데뷔 후 자신의 몸값을 백지위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범은 24일 오후 이영철 부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2008시즌 연봉에 대해 구단 처분에 맡기겠다. 알아서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종범은 본격적인 협상태입이 치러지기 전 자신의 의사를 밝혀 구단이나 본인이 갖게 될 부담감을 덜었으며 KIA가 어느정도로 결정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이 부단장은 “각정했던 이종범의 계약건이 백지위임으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팀내 최고참으로서 위상을 고려해 연내 발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범의 연봉 백지위임은 ‘백기 투항’의 성격보다는 내년 시즌 명예회복에 집중을 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올 시즌 은퇴설이 돌출정도로 부진했던 이종범은 그동안 ‘돈보다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의식을 갖고 선수생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올 시즌을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올 시즌 5억원을 받은 이종범은 내년 시즌 연봉 대폭 삭감이 예고됐는데 ‘2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의 최대 삭감선’을 40%



로 한다’고 규약이 있어 마지노선은 3억원 선이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이상의 삭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3억원선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다.

다만 옵션을 설정해 실적대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2억원과 3억원선에서 결정돼 ‘2억원+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종범은 2005시즌이 끝난 뒤 2년간 18억원에 FA계약을 했으나 계약 기간 동안 이렇다할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2006년에는 타율 2할 4푼2리(1홈런·21타점), 2007년 1할7푼4리(1홈런·18타점)로 데뷔 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오스 보낸 두산 “김선우 오라”

오늘 첫 공식 접촉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35)를 일본으로 떠나 보내게 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해외파 김선우(30)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 구단은 25일 “김승영 단장과 김태룡 운영부장이 내일(26일) 정오에 김선우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즌을 앞두고 양측이 공식 접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은 지난해 겨울에도 4년 총액 45억원을 제시하며 김선우의 한국행을 설득했다.

김 단장이 직접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는 등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김선우는 당시만 해도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하겠다는 두산 입단을 거절했지만 올 시즌 빅리그 진입에 실패한 뒤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두산도 리오스를 일본 야쿠르트 스왈

로스에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김선우 영입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공식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최희섭, 서재용(이상 KIA)에 이어 김선우의 국내 귀환이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두산은 구체적인 제시 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른 해외파 선수들이 첫 해 몸값이 계약금 포함해 적게는 13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5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기준 삼아 김선우에 대한 대우를 최종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김선우가 새해 한국에서 뛰려면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끝내야 하는 만큼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2001년에 메이저리그 데뷔한 김선우는 작년 10월 신시내티 레즈에서 방출된 뒤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채 올해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 프레스노 그리즐리스에서 뛰면서 8승8패, 평균자책점 4.87에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오늘 이들을 지켜보라”



“이천수 로테르담 대비 선발 고려”

페예노르트 마르웨이크 감독

갑작스러운 일시 귀국으로 방황했던 이천수(26·페예노르트·사진)가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에레디비지)에서 예상외로 빨리 제자리를 찾았다.

이천수 소속팀 페예노르트의 베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와 인터뷰에서 “이천수를 로테르담 대비 선발 출장시킬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승2무3패(승점 32)로 PSV 에인트호벤(승점 33)에 승점 1점 차이로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는 페예노르트는 26일 오후 8시 30분 네덜란드 로테르담 데퀴프 홈 구장에서 같은 연고지를 쓰는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2007-2008 에레디비지에 16라운드 대비 매치를 벌인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이천수는 지난 주 한국에서 돌아온 뒤 세 번의 팀 훈련에서 충분한 체력과 활발한 몸놀림을 보여줬다. 선발 출전을 시켜도 제몫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NEC 네이메겐전에서 예상대로 이천수를 투입한 다음 우리 팀은 후반전 상태를 계속 위협하고 몰아붙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천수는 네이메겐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했고 페예노르트는 후반에만 두 골을 넣어 2-0으로 완승했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이천수가 부상자들이 많은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번 한국으로 돌연 귀국했던 문제는 잘 마무리됐다.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천수는 지난달 11일 아약스전에 이어 한달 보름 만에 두 번째 선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부상 이후 9개월만에 복귀”

BBC·스카이스포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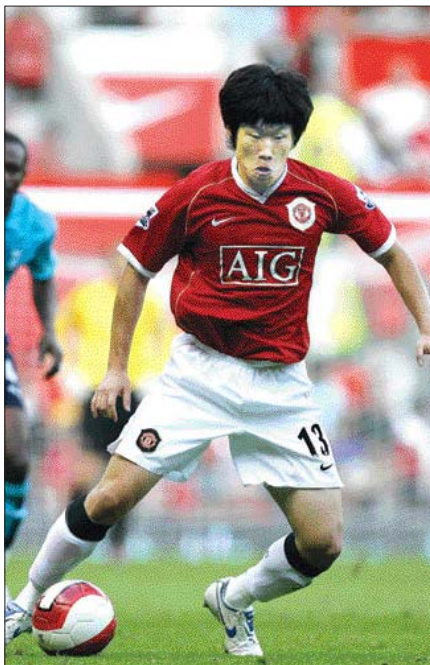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들고 돌아온다.

26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영국 타인위어주 선덜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펼쳐질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선덜랜드와 원정경기에서 화려한 킥백을 할 것으로 보인다.

BBC와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박지성이 무릎 수술 이후 처음 그라운드에 돌아올 것 같다고 나란히 전망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베스트 일레븐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고 박지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BBC는 맨유 예상 스쿼드(22명)에 박지성의 이름을 올렸다. 지난 23일 에버턴전 복귀가 불발한 박지성은 선덜랜드전에서 교체 멤버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블랙번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부상을 당해 무려 9개월을 쉬 박지성은 270일만에 프리미어리그 그라운드 에 돌아오게 된다.



이번 선덜랜드전은 프리미어리그에 특별한 날인 ‘복싱데이’에 열린다. 복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상자에 포장한 선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데서 유래한 날로 프리미어리그에선 사흘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르게 돼 뻘뻘한 일정이다.

MLB 양키스 사치세 2,388만달러 낸다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가 올해도 사치세(luxury tax) 2천388만달러를 내게 됐다.

25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2억700만달러의 선수단 연봉 총액을 기록한 양키스는 선수 몸값에 따른 사치세 2천388만달러를 납부하게 됐다.

미국프로야구 구단은 2003년 마련된 노사협상안에 따라 선수단 연봉 총액이 일정 기준(올해는 1억4천800만달러)을 넘을 경우 납금 액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치세로 물어야 한다.

메이저리그 최고 부자 구단인 양키스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로 5년 연속 사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5년간 낸 액수만도 1억2천100만달러에 달한다.

통신은 양키스가 지난 시즌 중반에 로저 클레멘스와 맺은 1천742만달러 규모의 계

약만 아니어도 약 700만달러의 사치세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4년 연속으로 사치세를 물고 있는 보스턴 역시 선수단 연봉 총액이 1억6천300만달러를 기록하며 606만달러의 사치세를 물게 됐다.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윈도 회원권	골프·윈도 회원권
평균 3,500	평균 1,800
납입권 4,200	골드 2,400
회비 900	도 3,000

성명: (062)351-0095